

선교사 기록에 나타난 전주의 풍속

- 마티 잉골드의 자료를 중심으로 -

송영애*

목 차

- | | |
|------------|------------|
| 1. 머리말 | 5. 전주의 풍습 |
| 2. 마티 잉골드 | 6. 맺음말 |
| 3. 잉골드의 기록 | 참고문헌 |
| 4. 전주의 생활상 | <Abstract> |

국문초록

본 연구는 1897년부터 1925년까지 약 28년을 전주에서 생활한 의료선교사 마티 잉골드의 기록에 기초하였다. 잉골드가 남긴 자료는 일기, 보고서, 편지, 진료기록 등으로 다양하다. 이 자료에서 당시 전주의 세시풍속, 민간신앙, 민간요법 그리고 의식주와 같은 생활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설날의 설빔과 세배와 같은 풍속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정월대보름에 행했던 석전, 허수아비 버리기, 어부습과 같은 풍속은 지금은 완전히 사라져 문헌에만 남아있다. 나아가 전주사람들의 의식주를 살펴보았는데, 짚으로 지은 초가집에는 나무를 태워 방을 데우는 온돌이 있고, 음식은 주로 밥과 김치다. 옷은 신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입는데, 잉골드는 화려한 혼례복에 대한 기록을 자세하게 남겼다. 모든 병은 귀신이 들어와서 생기는 것으로 먼저 병에 걸리면 가정에서 민간요법으로 치료하고, 그리고 무당을 찾는다. 이게 바로 당시 전주, 전주사람들의 생활이었다.

* 전주대학교 K-food산업연구소 연구교수, E-mail: food-song@hanmail.net

잉골드의 기록은 전주 땅을 밟았던 외국인이 남긴 자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남긴 문헌 그리고 1920년에 발간된 1892년부터 1919년까지의 호남선교 활동 보고서를 정리한 애너벨의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잉골드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고자 하였다.

주제어 : 마티 잉골드, 선교사, 전주, 세시 풍속, 의식주

1. 머리말

한국에 개신교가 전파된 것은 1884년 9월에 미국 북장로교 소속의 알렌(H.N. Allen, 1858~1932)이 공식적으로 입국해 상주하게 되면서 한국 선교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전주 지역의 개신교 전파는 1892년에 구성된 7인의 개척자로부터 출발한다. 이들은 루이스 테이트(L.B. Tate, 1862~1929), 매티 테이트(M.S. Tate, 1864~1940), 윌리엄 레이놀즈(W.D. Reynolds, 1867~1951), 팻시 볼링(Patsy Bolling, 1868~1962), 윌리엄 전킨(W.M. Junkin, 1865~1908), 메리 레이번(Mary Leyburn, 1865~1952), 리니 데이비스(Linnie Davis, 1862~1903)다.

1892년에 들어와 서울에서 어학 공부와 제반 수련을 하고, 1893년 9월 전킨과 테이트가 먼저 전주를 방문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 이들은 주로 전주, 군산 지역에서 선교 활동을 펼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테이트는 전라북도 일대의 미개척지를 순회하며 78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1,500명에 가까운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었다.²⁾ 매티 테이트는 전주에 온 첫 번째 서양 여성으로 1898년에 자신의 방에서 소녀들을 가르쳤는데 지금의 기전여중·고등학교다. 전킨은 군산에 선교 지부를 설치하고, 자신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다. 이것이 군산 구암교회다. 1902년에는 서재에서 소년을 가르쳤는데 군산 영명학교(현재 군산 제일고등학교)다.³⁾ 또 전킨 부인인 메리 레이번도 군산에 머무르며 안방에서 여학생을 교육하였는데 멜볼딘여학교로 발전하였으며, 지금의 군산 영광여자고등학교다. 레이놀즈도 1900년에 선교사 사택

1) 김수진, 1998, 『호남기독교 100년사』, 쿨란출판사, 22-24쪽

2) 류대영, 2012,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Lewis Boyd Tate) 가족의 한국 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27호, 5-35쪽

3) 이남식, 2003, 『전킨의 전북지방 선교』,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30쪽

의 사랑방에서 소년 1명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는데, 지금의 전주 신흥학교다.

그런데도 이들은 같은 시대에 들어와 선교 활동을 한 게일(J.S. Gale, 1863~1937), 길모어(G.W. Gilmore, 1857~?), 모펫(S.A. Moffett, 1864~1939) 등과 비교하면, 조선을 기록한 단행본을 한 권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나마 최근에 7인의 선발대 중 한 명인 테이트 선교사와 결혼을 하고 전주에서 28년 동안 사역한 마티 잉골드가 쓴 일기, 보고서 등이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는 정도다.

전주를 다녀간 선교사들의 업적에서도 잉골드의 이름은 주로 남장로교의 호남선교와 관련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의료선교사로서 전주에서 진료소를 열고 환자들을 치료해준 내용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⁴⁾ 따라서 잉골드와 관련된 선행 연구도 신학에서 의료선교 활동과 더불어 남편 테이트와 펼친 선교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구 또한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⁵⁾⁶⁾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종교성을 떠나 마티 잉골드가 전주에 머문 1897년 11월부터 미국으로 떠난 1925년까지의 기록에서 ‘전주’의 지역성을 두고, 잉골드를 통해 본 전주의 생활상과 풍습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고자 첫째, 잉골드의 눈에 비친 산과 천이 있는 전주의 풍경과 5일마다 서는 장날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둘째, 당시 전주 사람들은 어떠한 옷을 입고, 무슨 음식을 먹으며, 어디에서 생활하였는지 알아보고, 전주에서 거주하는 선교사들은 어떻게 적응해나갔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전주에서는 세시풍속인 설날, 정월대보름 그리고 여름철 백중날에 어떤 행사를 치렀는지 살펴보았다.

넷째, 생활문화로 장례 과정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 그리고 민간 신앙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의료 선교사는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알아보았다.

개인의 기록은 상당한 부분 제한된 경험을 바탕으로 주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적으로 보편화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는 조선 시대에 전주에 들어왔던 외국인이 남긴 자료와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이 남긴 문헌들과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최종적으로 1907년에 교육선교사로 전주에 온 애너벨(Anabel Major Nisbet, 1869~1920)이 1920년에 발간한 1892년부터 1919년까지의 호남선교 활동 보

4) 김수진, 1998, 앞의 책, 154-161쪽

5) 김천식, 2011, 『마티 잉골드의 선교 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1-8쪽

6) 류대영, 2012, 앞의 논문, 5-35쪽

고서)를 바탕으로 잉골드 자료를 재검토하였다. 이로써 잉골드 개인의 주관적인 기록을 최대한 객관화시키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전주의 생활상이 기록된 고문헌의 부족한 현실 속에서 전주 사람들의 일상생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내국인의 기록이 아닌 외국인이 쓴 기록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지금까지 잘 알려지지 않은 19세기 말 전주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2. 마티 잉골드

마티 잉골드(Mattie barbara Ingold, 1867~1962)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태어났다. 기독교 가문의 분위기 속에서 유아 시절부터 성경을 따라 읽을 정도로 신앙적으로 남다른 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⁸⁾

1889년에 록힐의 윈스롭(Winthrop) 대학에 입학하였다. 졸업하면서 해외선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이 확고해졌다. 때마침 록힐 제일장로교회에서도 잉골드에 대한 선교사 파송 지원을 구체화하였다. 교회 방침에 따라 의사 수업을 위해 볼티모어에 있는 여자의과대학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던 1895년에 이미 미국 남장로교 선교부로부터 조선 선교사로 임명을 받는다. 이로써 잉골드는 조선으로 떠날 수 있는 선교사로서 모든 준비를 하게 된다. 록힐 제일장로교회에서는 잉골드를 위해 1897년 7월 18일에 환송예배를 개최한다.

1897년 당시 조선은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였고 특히 호남지방은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난 지 불과 3년밖에 지나지 않아서 전주는 여전히 여수선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잉골드는 지인들에게 “여러분을 이 세상에서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말을 남긴 채 조선, 전주로 출발을 강행하였다. 그녀의 나이 불과 30세였다.

9월 15일에 제물포에 도착하여 조선 땅을 밟게 된다. 서울에서 약 한 달을 보내고, 10월 19일에 군산에 도착한다. 군산에서 2주간 머물면서 익히 의사사역을 하고 있었던 드류(A.D. Drew, 1859~1924) 선교사로부터 진료에 관한 경험적 지식을 들은 후에 전주로 출발한다. 군산에서 가마를 타고 약 64Km를

7) Anabel Major Nisbet, 1920,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1-199p

8) Seel, David J, 1999, 『For whom no labor of love is ever lost: the history of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honju, Korea, 1898~1998』, Providence House Publishers, 32p

이동해서 11월 3일 저녁에 드디어 전주에 도착한다. 잉골드는 전주에서 생활한 첫해에는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였고, 이듬해에 진료소를 설치하였다. 진료소는 점차 확장되어 오늘날 전주예수병원의 모체가 되었다.

1904년에는 안식년으로 고향에서 휴가를 보낸 후, 1905년 9월에 다시 들어와 테이트 선교사와 결혼하게 된다. 이때부터 잉골드는 의료 선교사의 일보다는 남편과 함께 복음전도에 집중하게 된다. 1925년 4월에는 부부 모두 건강의 악화로 인해 모든 선교사역을 접고 영구 귀국의 길에 올랐다. 당시 잉골드는 58세였다. 미국 플로리다 주에 정착해서 살다가 1962년 95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⁹⁾¹⁰⁾

애너벨에 의하면 잉골드는 전주에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치료해줌으로써 기독교와 서양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없애는 데 큰 도움이 되었고, 더불어 복음을 전할 기회까지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늘 상냥함으로 가득한 의사가 일하고 있는 작은 진료소는 ‘산 위에 있는 등대’가 되어 “한 명의 의료 선교사는 선교사 하나 반과 같다”고 잉골드를 호평하였다.¹¹⁾

모팻은 잉골드를 두고 평소에는 조랑말을 타고 다니며 활동하고, 의사의 이름으로 서양 의학을 조선의 시골로 가져온 선구적인 여의사라고 평가하였다.¹²⁾

3. 잉골드의 기록

잉골드의 자료는 대부분이 미국 남캐롤라이나의 록힐 제일장로교회에 보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에서 재정리하여 1996년에 영인하여 『Personal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Korea (1892~1986)』에 수록하였다.¹³⁾ 또, 예수병원은 2018년에 설립 120주년을 기념하며 다양한 기록을 요약하여 책으로 발간하였다.¹⁴⁾ 잉골드 기록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문화원형 라이브러리에 일부 소개되어 있다.¹⁵⁾

9) 김천식, 2011, 앞의 논문, 29-46쪽

10) 류대영, 2012, 앞의 논문, 5-35쪽

11)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54p

12)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https://library.ptsem.edu>(Samuel Austin Moffet, 『Slide Lectures - CHANGING PATTERNS IN MISSION』, 4p)

13)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6, 『Personal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Korea(1892~1986) - 19』, 13쪽

14) 마티 잉골드 지음, 고근 옮김, 2018, 『마티 잉골드 일기』, 한솔디자인, 1-400쪽

15)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culturecontent.com>(검색일 : 2021.05.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에서 발간한 영인본 자료를 토대로 진행하였다. 또 내한 선교사들의 자료(편지 등)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선교사 기록물 소장 도서관의 리스트를 중심으로¹⁶⁾ 잉골드와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¹⁷⁾ 가장 대표적인 도서관은 미국 프린스턴 신학대학 도서관, 미국 장로교역사학회, 하티트러스트 디지털 도서관, 예일대학 바이네케 고문서도서관, 뉴욕공립도서관 등이다.¹⁸⁾

잉골드 자료는 1896년부터 1929년까지의 일기, 진료기록, 주일학교 기록, 기고문, 관련 기사 등으로 총 264건(일)이다.

먼저 일기를 살펴보면 1897년 7월 18일 송별회부터 ‘내 일기의 마지막 기록’이라고 표현한 1929년 4월 20일까지다. 이 기간은 약 32년으로 11,748일에 해당하나 일기로 남긴 것은 175일에 불과하다. 175일의 일기에서도 전주에 머무르면서 쓴 것은 85일이고, 군산, 서울, 제물포 등의 국내에서 쓴 일기는 약 50일이다. 또 러시아, 독일, 영국 등 해외에서 쓴 여행 일기가 약 30일이다. 나머지는 장소를 알 수 없다.

잉골드는 일기를 매일 쓴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기록해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가끔 쓰는 일기의 앞부분에 “너무 조금 쓰고 있다”, “일기를 쓸 시간이 부족하다”, “거의 1년 가깝게 기록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기를 쓴지 15년이 되었다”고 한탄하기도 했다.¹⁹⁾

자료에는 1897~1898년, 1899년, 1902년 선교와 관련된 내용의 연간 보고서도 포함되어 있다.

진료기록은 총 39건이다. 의료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1905년 결혼과 함께 진료소의 일보다는 선교의 일에 충실하며 많은 자료를 남기지 못한 것으로 본다.년도 별로 살펴보면 1903년에 14건, 1904년에 13건으로 가장 많다.

기고문은 조선에 온 1897년부터 1917년까지 한국의 첫인상, 한국생활 6개

16) 장윤금, 2012,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30(4), 266-281쪽

17) 키워드는 mattie ingold, martha ingold, tate, chonju, chunju, jeonju, kunsan, korea 등이다.

18) HathiTrust Digital Library(<https://www.hathitrust.org>)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https://library.ptsem.edu>), The New York Public Library(<https://www.nypl.org>),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s Digital Collections(<https://www.history.pcusa.org>), University of Arkansas Library(<https://libraries.uark.edu>), Yale University, Beinecke Library(<https://beinecke.library.yale.edu>),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Library(<https://divinity.yale.edu>)

19) 1898년 1월 23일, 1900년 6월 7일, 1903년 10월 10일, 1925년 4월 11일 일기의 내용이다.

월, 수술, 결혼식 등의 내용이다.

개항 이후 서구인들의 조선 입국은 외교관, 의사, 여행가, 군인, 교사 등의 신분으로 자의적으로 또는 고종의 초청으로 이루어졌다. 구한말 조선을 방문한 외국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은 선교사들이었다. 1880년대 미국, 영국, 캐나다의 선교회에서는 조선에 기독교를 전파할 목적으로 집중적으로 선교사들을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은 선교를 목적으로 조선을 여행하며, 각 지역에서 체험하며 알게 된 풍속 등을 상세히 기록하였다.²⁰⁾ 이와 같은 기록은 외래문화에 오염되지 않았던 시기의 조선의 전통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²¹⁾

호남지역 선교를 위한 7인의 선발대가 군산, 전주 등지에서 많은 교회와 학교를 건립하며 복음전파와 교육사업을 전개했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의 생활상을 기록한 자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잉골드의 자료에 기초한 본 연구 결과는 당시의 전주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a



b

그림 1. 잉골드의 의료 활동사진

그림 1에서 a 사진은 잉골드가 1897년에 병원의 조제실에서 일하는 모습이다. 왼쪽 하단에는 짜리로 엮은 광주리가 보인다. b 사진은 1905년에 진료 중인 잉골드의 모습이다.²²⁾ 옆에 서 있는 조선인이 손으로 입을 가리며 놀라는

20) 한식재단, 2009, 『근대 한식의 풍경』, 한림출판사, 145~169쪽

21)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편, 2014,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채륜, 72쪽

모습이 인상적이다.

4. 전주의 생활상

1) 전주 풍경

(1) 전주, 전주 사람

잉골드가 전주에 도착한 것은 1897년 11월 3일 저녁이다. 도착하자마자 느낀 전주의 이미지는 ‘아름다운 곳’이며, ‘최소한 둘러싸고 있는 언덕만큼은 아름다운 곳’이라고 강조하였다.²³⁾

전주에는 약 만 명이 거주하며, 그다지 높지 않은 성벽이 에워싸고 있는 성이 있다. 성 안에는 전라도를 관할하는 관청이 있어 관찰사를 비롯하여 인구의 절반 정도가 살고 나머지는 주로 성 밖의 남쪽과 동쪽에 살고 있다. 잉골드는 성 안에 아는 여인이 한 명도 없어 그곳에 들어가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했다.

애너벨은 전주를 ‘아름다운 성곽도시(a beautiful walled city)’라고 표현하였으며, 현재까지도 매우 보수적인 곳으로 역사가 오래되어 귀족적인 생활 규범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²⁴⁾

도시를 가로질러 깨끗한 시냇물이 흐르고, 아이들은 벗은 채 헤엄을 치며, 바구니로 작은 물고기를 잡기도 한다. 또 아낙네들은 시냇가에서 빨래하고, 채소를 씻는다. 채소는 주로 무와 배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전주에는 미적인 건축물은 보기가 힘들다. 악취가 심한 좁은 거리마다 짙으로 덮힌 낮은 초가집이 있고, 집마다 방을 태우기 위해서 풀과 잡목을 태우는데 이때 나는 연기가 도시 전체를 덮고 있다. 겨울에는 나무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산은 다 벌거숭이가 되어 있다.

전주 선교부는 전주성 밖의 남쪽 언덕 위에 있어 전주가 아주 잘 보이는데, 어두운 밤에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막걸리를 파는 술집에 매달려 있는, 또는

22)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https://library.ptsem.edu>(검색일 : 2021.05.19.)

23) 전주를 1897년 11월 11일 일기에서는 “This is a beautiful place”라고 하였으며, 11월 20일에서는 “Chunju is a beautiful place”라고 기록하였다.

24)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21p

행인들이 들고 다니는 종이로 만든 초롱 불빛뿐이었다.

전주는 몇 년 전부터 거주하는 프랑스 천주교 신부를 제외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외국인의 영향이 거의 없는 내륙에 자리 잡고 있어 은자의 나라다운 특징을 잘 보여주는 곳이라고 하였다. 잉골드가 기록한 천주교 신부는 1885년 한국에 도착하여 1889년 봄에 전주 본당(현재 전동성당) 초대 주임신부로 부임한 보두네 신부(Baudounet, Francois Xavier, 1859~1915)다. 따라서 잉골드는 외국인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전주 사람들에게 지나친 선입견과 충격을 주지 않으려면 천천히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잉골드가 전주에 도착한 지 일주일이 되자 소문이 나면서, 상당히 많은 부녀자가 교대로 구경을 하기 위해 몰려왔다. 아이들은 잉골드를 보자마자 겁을 먹고 울며 도망가기도 했으며, 가끔 남자들도 구경을 와 헛기침을 하기도 했다. 잉골드가 선교 활동을 위해 가마를 타고 가다가 잠시 멈추면 호기심 많은 사람이 몰려와 옷을 만지고, 물어보며 재미있어했다. 아이들은 그들의 엄마를 불러 빨리 나와서 지나가는 ‘저것들’²⁵⁾을 보라고 하였으며, 봄이 되면 구경꾼들이 늘어나는데 잉골드는 이 시기를 ‘구경의 계절(the Koogyung season)’이라고 하였다. 사람들은 매일매일 몇 번씩 “구경하러 왔소(Koogyung haro oasso)”라고 소리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구경(Koogyung)’이라는 한국말이 없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기도 했다.

애니벨 역시 한국의 집에는 초인종이 없고, 종이로 된 문을 두드릴 수 없으니 주인이 나올 때까지 자신의 방문을 알리기 위해 기침을 하거나 목을 가다듬는 구경꾼들이 매일 온다고 하였다. 종종 “구경하러 왔소(Koo-gyung harra wasso)”라고 소리치기도 하지만, 매일 찾아오는 호기심 많은 구경꾼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다고 한다.²⁶⁾

잉골드는 전주 생활의 초창기에 이와 같은 불편함이 있었을지라도, 28년의 사역을 마치고 고향으로 되돌아가 플로리다에 정착하고도 전주를 많이 그리워했다. 플로리다에서의 생활도 정말 행복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전주에 있는 집으로 자주 되돌아가곤 한다(our hearts often go back to our home in chunju)”고 고백하였다.

(2) 전주 장날(남밖장)

잉골드는 남밖장에 대한 기록도 남겼다. 먼저 5일마다 서는 시장의 풍경은

25) 잉골드는 ‘things’라고 표현하였다.

26)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52-53p

매우 흥미롭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아주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아침 5~6시가 시장 보기에 가장 적당한 시간이며, 장터는 짚으로 헛간 같은 공간을 만들어 햇볕과 비를 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인들은 가져온 물건을 펼쳐놓고 장사를 하는데, 이때 5일 또는 10일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사야 한다. 장사꾼들은 다 팔지 못하면 남은 물건을 다시 집으로 가지고 가거나 다른 마을의 장터로 가지고 간다. 장사꾼들은 이렇게 여러 마을의 장터를 돌면서 물건을 판다.

장날에는 모든 종류의 곡식을 소에 싣고 나와 파는데, 이 밖에도 닭, 달걀, 숯, 종이, 신발, 나무, 바구니 등을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달걀은 열 개 단위로 짚을 이용해서 꼬투리에 들은 완두콩처럼 엮었는데 들고 다니기에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이렇게 포장을 하면 깨질 염려가 없어 장작처럼 팔로 한가득 안거나, 소에 싣어 나를 수도 있다. 한 꾸러미의 가격은 3센트 정도다.

애너벨은 5일마다 열리는 장(market day)을 ‘Chang-nal’이라고 표현하였으며, 이날은 아주 먼 곳으로부터 자신의 물건을 가지고 와서 팔거나 다른 물건과 바꾼다고 하였다. 짚으로 덮인 노점이 세워지고, 돼지, 소, 그리고 닭이 소리 내어 울며, 사람들이 자기 물건을 먼저 팔려고 소리치는 곳이 바로 장인데, 처음 장을 접한 선교사들은 무슨 소동이 일어난 것으로 착각할 정도로 소란스럽다고 하였다.

1894년에 들어와 서울, 전주, 군산, 목포 등에서 활동한 해리슨(W.B. Harrison, 1866~1928) 목사는 장날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날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전주에 있는 몇 명의 그리스도인을 설득하여 5일마다 열리는 장날에 많은 사람에게 설교할 수 있도록 장터에 두 개의 헛간을 만들어 복음을 전하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이 장날에 구매한 물건을 쌀이나 닭고기, 달걀 등이며 다른 물품들은 샌프란시스코로부터 조달되어 제물포와 군산을 통해서 전주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전달되었다.²⁷⁾ 따라서 전주에서 활동했던 선교사들이 남밖장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서양인으로서 전주를 최초로 기록한 사람은 하멜(Hendrik Hamel, 1630~1692)이다.²⁸⁾ 하멜은 1654년 5월 말, 한양으로 압송되는 길에 전주에 들르게 된다. 전주는 지난날 왕이 살던 곳으로 지금은 전라도 관찰사가 주재하고 있

27)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26-27p, 51-52p

28) 하멜 일행은 1653년 제주도에 표류되었다. 1666년 억류생활 끝에 탈출하여 1668년에 귀국했다. 억류 기간 동안에 체불된 임금을 청구하기 위해 『하멜 보고서(Hendrick Hamel's report)』를 쓰게 되었고, 국내에서는 『하멜표류기』로 알려져 있다.

으며, 전국적으로 유명한 상업 도시로서 큰 장이 서고 있다고 기록하였다.²⁹⁾

또 1896년에 전주를 여행한 러시아 장교 카르네프와 미하일로프도 남밖장 풍경에 대해 기록하였다. 성벽을 따라 나 있는 시장에서는 청국과 일본과 조선에서 생산되는 물건이 다양하게 있고, 싱싱한 생선을 돛자리 위에 펼쳐 놓은 채 팔았다. 잎이 풍성하고 싱싱한 나물과 썩도 팔고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국을 끓여 먹으며, 동해안에서 잡히는 것보다는 적은 양이지만, 문어도 팔고 있다고 하였다.³⁰⁾

2) 의복

(1) 신분 계급을 알려주는 일상복

잉골드는 전주에서 생활한 초기에는 한국의 관습을 알지 못해, 여인들의 의상을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옷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서민들의 옷은 무명천으로 가끔 깨끗한 흰색을 입기도 하지만, 거의 벗짚과 비슷한 색이다. 여러 곳이 떨어져도 그 부분을 몇 번이고 기워서 입는 게 특징이다.

춤을 추는 여인들은 보통 명주실로 짠 옷을 입는데 대체로 고급스러운 색깔이지만 간혹 천박하다고 느꼈다.

젊은 여인들은 다양한 색상의 상의를 입고 고급스러운 파란색 치마를 입는다. 특히 상류층 여인들이 입는 한복을 하층 계급의 여인들의 한복과 비교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여인들은 발목까지 덮는 바지를 입고, 그 위에 다시 짧은 치마바지를 입는다. 바깥의 화려한 치마는 보통 너무 길게 만들어 앞치마 같았고, 한쪽은 길게 열려 있다. 이 옷들은 겨드랑이 아래쪽의 몸에 들렀고, 전체적으로 독특한 다발 모양이 된다. 치마를 입는 방법에 따라 계급이 나뉘는데, 하층 계급은 한 방향으로 말아 올렸고, 양반 집 여인들은 다른 방향으로 올렸다.

‘저고리’라고 부르는 상의는 겨드랑이 바로 아래까지 올 정도로

29) 국립제주박물관, 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206-219쪽

30) ゲ.ゲ.チャガイ 編, 井上紘一 訳者, 1992, 『朝鮮旅行記』, 104-117쪽

짧았으며 치마의 끈과 만나는 것처럼 보였다. 나이가 든 여인들은 허리까지 오는 훨씬 긴 저고리를 입었는데, 이게 나아 보였다.

조선 시대 치맛자락의 여밈은 지역에 따라서 치마의 오른쪽 자락 끝이 위로 올라오게 하여 왼쪽으로 여며 입거나(시계 방향), 이 반대인 경우(시계 반대 방향)도 있다. 그러나 오른쪽 자락 끝이 위로 올라오도록 하여 왼쪽으로 여며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 기생이나 천민은 오른쪽 여밈을 하였고, 양반 부녀자는 왼쪽 여밈을 하였다.³¹⁾ 잉골드가 여인들의 한복 여밈을 보고 기록한 내용과 같다.

또 1900년에는 남밖장에서 긴 겹옷을 입고 높은 모자에 방울 술을 단 남자를 보았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보부상들이 쓰고 다니는 평량자, 즉 패랭이 위에 좌우로 매단 목화송이를 보고 쓴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조선 시대에는 복장만으로도 신분과 직업을 알 수 있었다.

잉골드는 총각들은 콧수염을 기르고 머리는 뒤로 땀아 허리까지 닿고 긴 청색 도포를 우아하게 입고 다니지만, 불행한 미혼 중 한 명이라고 하였다. 조선에서는 30살을 먹어도 결혼을 하지 않으면 어린아이 취급을 받고, 불과 15살 이더라도 결혼을 하고 상투를 틀었다면 존중받는 성인이라는 것을 알아가고 있었다. 따라서 잉골드의 직접적인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상투 튼 남자에게는 총각같이 머리를 내려서 땀아 오면 진료를 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견 당시 결혼한 남성이 여의사에게 진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2) 화려한 혼례복

잉골드는 1904년에 처음으로 한국의 결혼식 모습을 보게 된다. 이곳의 관습 인지는 모르겠으나 진지하거나 엄숙함은 없으며, 시끄러운 마당에서 결혼이라고 부르는 희극을 본 것 같다고 하였다. 잉골드는 결혼의 전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으나 이 중에서도 화려한 신부와 신랑의 혼례복을 가장 신기하게 여겼다.

신부는 빨간색의 비단 치마와 길고 큰 소매에 여러 색의 줄무늬가 있는 저고리를 차려입었다. 신부의 손목 위에서부터 손가락 아래로 6인치 이상 늘어진 하얀색 천이 손을 완전히 덮고 있다. 그녀의 머리 위에는 알록달록한 색종이로 만든 묘하게 생긴 화관이 있다. 신부의 얼굴은 분을 발라 하얗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번지르르하게

31) 한복진흥센터, 2015, 『한복이야기』, 비도트퍼블리싱, 24쪽

붙어 있다. 정면은 그림 모양 같이 생겼다. 신부의 나이는 15~16세 정도였고 아주 예쁘다.

신랑은 파란색의 긴 겹옷, 허리띠, 앞면과 뒷면에 정사각형의 자수 무늬가 새겨진 혼례복을 입었다. 결혼식에만 신는 목이 긴 검은색 신발을 신고, 모자에는 ‘날개’가 달려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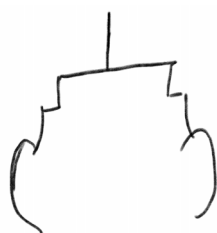
신부는 녹색 원삼을 입었다. 원래 원삼은 왕실과 반가 여인들의 예복이며, 조선 후기에는 서민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혼례복 중의 하나다. 민간용 원삼은 궁중용 원삼과 달리 전체적으로 치수는 작지만, 소매에 색동이 여러 층을 이루고 있다.³²⁾ 잉골드는 이를 두고 “길고 큰 소매에 여러 색의 줄무늬가 있는 저고리”라고 표현하였다.

신부가 머리에 쓴 화관은 조선 시대에 꽃과 보석 등으로 장식한 가장 화려한 여성의 예장용 머리 장식이다. 주로 혼례 시 신부가 착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잉골드는 신부를 정면에서 본 모습을 그림 2와 같이 그려두었다. 참고 사진과 비교해서 보면, 앞가르마, 이마, 관자놀이, 볼을 나타내는 선명한 선이다.

신랑의 모자에 날개가 달린 것은 사모(紗帽)다. 사모는 조선 시대 백관(百官)이 주로 상복(常服)에 착용하던 관모지만, 서민에게도 혼례 때는 착용이 허용되었다. 목이 긴 검은색 신발은 목화(木靴)다. 목화는 왕과 문·무 관리가 관복을 입을 때 신던 목이 긴 신으로 혼례 때는 서민들도 신었다.³³⁾

이처럼 당시 전주에서 혼례를 치르는 신랑은 사모관대를 갖추고 목화를 신었으며, 신부는 원삼을 입고, 화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b

그림 2. 잉골드가 그려둔 신부의 정면 모습(a)과 참고 사진(b)³⁴⁾

32) 임현주, 2012, 『조선 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30쪽

33) 최공호 외 지음, 2015, 『한국인의 신발, 화혜』, 미진사, 100-103쪽

잉골드를 비롯한 전주에서 생활했던 여성 선교사들은 신부의 집에 초대되어 매우 아름답고 정교한 혼수품을 구경하였다. 신랑 집안이 부잣집이라서 신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다. 세 개의 황금 비녀, 아름답게 빛나는 비단, 화려한 색의 공단과 많은 양의 옥양목에 모두 놀랐다. 그리고 조선은 옷의 유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신부는 옷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3) 음식

(1) 잔치 음식과 식문화

잉골드 일행은 선교 활동을 위해 가정집을 자주 방문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선교사를 초대하는 사람은 없고, 심지어 잉골드 일행이 방문하는 것조차도 불편해했다. 동네 사람들이 잉골드를 구경하기 위해 너무 많은 몰려들어 초대할 사람을 난처하게 만들기도 하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기 때문이다.

가끔 양반 집안의 상류층 부인들은 미리 날짜를 잡고 저녁 식사를 초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주성 안에서는 누구도 잉골드를 초대하지 않았다.

1898년 5월 2일 아침, 잉골드 일행은 세례를 받은 76세 노인의 생일잔치에 초대를 받아 방문하게 된다. 잉골드는 이날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며칠 전부터 안주인은 아침 식사를 하지 말고 오라고 당부하였다. 잉골드는 음식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서 그 말을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익히 한국에서 잔치와 잔치 음식을 경험했던 다른 선교사들은 평소처럼 아침을 든든하게 먹고 갔다. 잉골드는 훗날에야 어느 집에 가서 식사할 경우가 생기면 한국음식이 입에 맞지 않기 때문에 미리 밥을 먹고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잔치집의 풍경은 매우 흥미로웠다. 모든 음식은 마당이나 마루에서 주인과 친척, 이웃들이 함께 준비한다. 보통 부엌에는 식탁이 없기 때문에 마루가 식탁으로 사용되고, 미리 준비된 음식들은 놋그릇이나 토기에 최대한 눌러서 담는다.

생일 초대 상차림을 보면, 무릎 높이의 작은 식탁(밥상) 위에 접시들이 놓이고, 커다란 무쇠솥에서 지어진 쌀밥과 국, 그리고 반찬은 최소 열 가지다. 반찬으로는 순무로 부친 전³⁵⁾, 미역 조금, 순무 피클, 다진 고기로 만든 요리(hash),

34) 조자호 지음, 정양완 풀어썹, 2014, 『조선요리법』, 책미래, 13쪽

말린 생선, 묵이라고 불리는 콩으로 만든 젤리, 콩나물로 끓인 국이다. 이를 두고 기름에 튀기고(부치고) 형언할 수 없는 맛을 가진 다양한 종류의 맛있는 음식이라고 표현하였다.

손님 두 명이 식탁(밥상)을 하나씩 썼고, 1쿼트(약 0.95리터) 정도의 늦그릇에 음식이 가득 담겨 나왔다. 밥은 각자에게 제공되지만, 반찬은 함께 먹는다. 삼 모양과 비슷한 늦수저와 나무로 만든 젓가락 한 쌍으로 식사를 한다. 한국인들은 젓가락으로 모든 것을 집어 먹는데, 잉골드는 젓가락으로 물건을 낚아 채듯 온 정신을 쏟았다. 이런 잉골드의 노력은 주위 친구들을 매우 유쾌하게 했고 큰 웃음을 주었다. 결국, 일행이 젓가락 대신 사용할 뾰족한 막대기를 가져다주었지만, 잉골드는 젓가락을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 젓가락을 사용하는 데는 성공하였지만, 차려진 음식 맛에 대해서는 충분히 적응하지 못했다.

잉골드가 느낀 전주음식의 특징으로는 거의 모든 음식에 고춧가루가 빠짐없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한국인들은 고춧가루가 넉넉하게 들어가지 않은 음식은 맛이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생각한다. 잉골드에게 이 고춧가루는 절대 달가워할 수 없는 두려운 음식이었다.

이와 같은 생각은 1884년에 입국한 알렌도 같은 생각이었다. 알렌은 한국인들은 쌀밥에 많은 양념 반찬이 필요한데 이는 팽배한 위가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면, 따라서 조선의 음식에는 고추가 많이 들어간다고 하였다.³⁵⁾

잉골드는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을 집어서 옆에 앉은 한국인에게 슬쩍 건져주면서 대신 먹어주기를 바라기도 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한국인들에게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예의’로 비치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 의도와 달리 매우 예의 바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도 알게 된다. 잉골드는 이후에도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한국음식을 끝까지 적응하지 못해 그때마다 ‘음식 나눔’을 하였다고 고백하였다.

1900년 10월에는 선교 활동 중에 초대되어 저녁을 먹었는데, 주인은 쌀·수수와 콩으로 지은 밥, 두 종류의 김치, 양파 한 접시, 삶은 달걀 7개를 주었다. 역시 김치는 한국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반찬이라고 강조하였다.

1920년 애너벨의 기록에 의하면 대표적인 한국음식은 쌀로 지은 밥이며, 밥

35) ‘fried turnip’로 직역하면 ‘순무 튀김’이지만, 우리나라의 조리법과 명칭에 준해서는 ‘순무로 부친 전’으로 해석함

36) H.N.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조선 견문기』, 집문당, 56쪽

을 먹을 때는 김치가 필수 반찬이라고 역설하였다.

하루는 선교사 중 한 명이 벽에서 냄새가 나자, 쥐가 죽었다고 확신하고 벽지를 모두 찢고 있었는데, 그 냄새의 원인은 지하실에 보관하도록 허락한 겨울용 김치였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을 동동거렸다고 한다. 이후에는 김치가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지 않아도 금방 알 수 있었는데, 오직 지독한 냄새 때문이다.³⁷⁾

많은 선교사의 기록에서 한국음식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김치의 맛과 냄새로 인해 고생한 내용이다.

반면 잉골드는 김치 냄새로 힘들어하거나, 부정적인 글은 남기지 않았다. 다만, 11월과 같은 초겨울에 여성들은 겨울에 먹을 피클(김치)을 만드느라 아주 분주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집안을 방문하면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또 만났다 할지라도 너무 바빠서 잉골드의 말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었다. 잉골드는 전주에서 생활한 지 불과 1년이 지나자마자 김치를 많이 담가야 하는 김장 시기만큼은 전도하기에 매우 부적절한 환경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자 집을 방문하면 안주인은 제일 우선순위가 잉골드 일행의 밥을 차리는 것이었다. 잉골드는 식사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으니 함께 이야기하자고 설득하기에 바빴다. 간신히 안주인과 이야기를 나누어도, 마지막에는 역시나 한 상 가득 차려진 음식이 들어왔고, 어쩔 수 없이 밥과 달걀을 조금이라도 먹어야만 했다. 한국인들은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잉골드는 식사를 정중하게 사양하는 게 힘들었고, 도리어 선교 활동에 지장을 주었다고 밝혔다.

(2) 딸기 보급

딸기가 우리나라에 처음 보급된 경로는 농촌진흥청 자료에도 20세기 초에 일본에서 도입된 것으로 추정하며, 확실하지 않다.³⁸⁾

그러나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전주기전학교에서 2대 교장을 지낸 랭킨(N.B. Rankin, 1879~1911)이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쓴 편지를 살펴보면 잉골드에 의해 처음 도입된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에 쓴 편지에 의하면 “잉골드가 약 2년 전에 딸기 모종 50개를 가지고 와서 전주 선교부는 당연하고 실제로 전 선교사들에게 딸기를 공급해오고 있다”고 하였다. 2년 전인 1905년은

37)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50p

38) 농촌진흥청, 2019, 『농업기술기잡이-딸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16쪽

잉골드가 안식년으로 고향 미국을 다녀온 해다.

랭킨은 딸기가 나오는 5월과 6월이 되면, 전주 딸기 이야기를 미국의 가족에게 여러 차례 전하곤 했다. 딸기는 이곳의 토종 과일은 아니지만, 적응해서 아주 잘 자라며, 수확한 딸기를 먹을 때는 주로 두 조각으로 나누지만 아주 크면 세 조각이나 네 조각으로도 자른다고 하였다.³⁹⁾ 당시 딸기의 크기를 가늠해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후, 예수병원 근처인 화산동은 딸기의 본고장으로 이름이 나면서 딸기를 전국에 보급했다.⁴⁰⁾ 1950년대까지도 예수병원 건너편 언덕 같은 야산에는 딸기밭이 있었는데 전주 사람들은 ‘선녀머 딸기밭’이라고 불렀다.⁴¹⁾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의료선교사 잉골드가 우리나라에 딸기를 처음으로 전주 화산동으로 가지고 온 인물이라는 점이다.

4) 가옥

(1) 비위생적인 초가집

1897년 12월 25일, 전주에서 보내는 첫 번째 성탄절에 쓴 일기를 보면, 전주의 가옥 구조를 알 수 있다. 집을 짓는데 가장 유용한 재료 중 하나는 짚이다. 짚의 90%는 짚으로 엮은 지붕을 가지고 있다. 벽과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다. 비가 내려면 방으로 비가 새는 일도 있으며, 방바닥은 기름을 바른 종이로 덮여 있다. 이렇게 지어진 집은 모두 비슷비슷하게 생겼고, 갈대나 나뭇가지로 울타리를 둘러놓거나, 진흙으로 담을 쌓았다. 사람들은 집에 장식하지 않기 때문에 집은 거의 텅 비어 있고, 지저분하고 냄새가 고약하다고 하였다.

한국 집에 들어가려면 항상 조심하고 몸을 숙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피트(153cm)도 되지 않는, 심지어 훨씬 낮은 문틀에 이마를 다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집 안에서 가장 높은 곳을 제외하고는 허리를 펴고 서지 못한다. 방은 작지만, 종종 240×360cm인 경우도 있다. 이렇게 큰 방은 난방이 힘들기 때문에 너무 크면 부적당한 것이다. 벽에는 반으로 자른 다양한 크기의 박이 걸려 있다.

39)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6, 『Personal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Korea(1892~1986) - 16』, 35쪽

40) 강덕영, 2020,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 상상나무, 105-109쪽

41) 장명수·송영애, 2021, 『100년 전, 전주음식』, 공감, 125쪽(출판 예정)

부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안에는 사람들이 식사할 때 사용하는 작은 상이 있다. 새집이 아닌 경우 벽은 나무를 태울 때 나오는 그을음으로 검은색이다. 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솥이 있고 식사에 사용하는 놋그릇도 볼 수 있다. 아궁이에 불을 지펴 집을 데우고 요리도 한다.

마을로 선교 활동을 나가면 초가집에 머물 때가 있는데, 이때마다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끈질기게 기어 다닌다고 하였다. 한국인들이 이렇게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살고 있으니, 몸이 아픈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조금만 살펴보면 벽과 다른 모든 곳에 검고 더러운 거미줄을 볼 수 있지만 이런 것은 보지 않거나, 모르는 게 낫다고 설명하였다.

애너벨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집들은 기와집과 초가집 두 종류로 나뉘는데, 모두 단층이다. 시골에 있는 집들은 대체로 초가집이고, 부자들만이 기와집에 살고 있다. 벽은 대나무로 창살을 만들고 안팎으로 진흙을 바르면 된다. 방은 보통 8×8피트 크기고, 종이 문과 종이 창문을 가지고 있다.⁴²⁾ 그림 3은 1900년대의 전주 서남부에 있는 초가집을 찍은 사진이다.⁴³⁾



그림 3. 1900년대 전주 서남부의 초가집

42)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33-35p

43)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https://library.ptsem.edu\(1900~1909, Chunju - Korean thatched-roof houses in southwestern Korea / Date 1900\)\(검색일 : 2021.05.19.\)](https://library.ptsem.edu(1900~1909, Chunju - Korean thatched-roof houses in southwestern Korea / Date 1900)(검색일 : 2021.05.19.))

(2) 온돌 문화

잉골드는 1897년 11월, 전주에 들어왔을 때부터 온돌에 대해 기록하였다. 다른 선교사는 온돌을 두고 ‘매우 이상적인 난방 방법이다’라고 강조하지만, 잉골드는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인들은 흙으로 만든 방바닥 아래에 불을 때서 난방을 하고 따뜻한 바닥에 앉아 몸을 덥힌다. 밤에는 ‘요’라고 하는 누비이불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아침에 다시 그것을 치운다. 이와 같은 생활의 번거로움에 동의하지 않았다.

잉골드는 시골로 전도 여행을 갈 때마다 머무르게 되는 집에서 온돌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 1898년 11월 1일에 전주 인근으로 3주간 전도 여행을 가서 기록한 내용이다.

바닥이 뜨거운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방바닥이 타서 암갈색이 된 곳을 피해 우리는 끊임없이 몸을 돌려야 했다. 현지 환경에 익숙한 이씨 부인은 밤새 잠을 깊이 잤지만, 테이트 양과 나는 새벽까지 돌아누우며 오븐 속의 빵처럼 골고루 구워졌다.

1899년 순회전도보고서에서는 작은 방에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앉아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불로 바닥을 덥히다 보니 환기가 되지 않아서 아주 고역이었고, 뜨거운 열기에 몸이 타지 않으려면 계속 뒤척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림 4는 잉골드가 1900년에 성경수업을 하기 위해 전주에서 인근으로 떠나는 사진이다.⁴⁴⁾ 뜨거운 온돌 위에서도 편하게 잠을 자기 위해 이불을 싸 들고 다닌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은 1899년 금산으로 순회 전도를 하러 갔을 때의 일기에서도 찾을 수 있다. 한곳에 계속 머무를 때는 간이침대를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없다면, 이불 두 채를 챙겨서, 하나는 따뜻한 바닥에 깔고 다른 하나는 덮어 편안한 잠자리를 만들었다고 하였다. 또 테이트 선교사가 1903년에 쓴 선교방법에 의하면 선교를 위해 떠날 때는 두 명의 짐꾼을 데리고 다니는데, 한 명은 책을 운반하기 위해서고 다른 한 명은 음식과 침구를 운반하기 위해서라고 하였다.⁴⁵⁾

44)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s Digital Collections, <https://www.history.pcusa.org> (Dr. Mattie Ingold Tate on horseback.)(검색일 : 2021.05.19.)

45)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87-88p



그림 4. 1900년, 성경수업을 위해 떠나는 마티 잉골드

1898년 8월 1일 일기에는 여름 장마가 시작되어 3주 동안 매일 비가 내려 시냇물은 넘쳐흐르고 다리가 떠내려가는 일도 있었다. 여름에 집을 건조하려면 불을 때야 하는데, 그러면 사람이 오븐 속에서 구워지는 것과 같고 그러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어난다. 잉골드는 두 재앙 중에서 후자를 선택했더니 벽이 푸른곰팡이로 덮이고 벽과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갖 악취로 인해 괴로울 정도였다고 기록하였다.

1898년 12월 1일에는 추운 날에도 소년들이 집에 불을 때기 위한 연료를 구하려고 산비탈로 나가고, 나무를 모두 베어내 산은 벌거숭이가 되었다. 한국 생활에서 온돌을 사용하는 것은 호사가 아니라 필수라는 것도 서서히 깨닫게 된다.

애너벨의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집은 부엌에서 불을 때면서 요리와 난방을 함께 하는 구조다. 아궁이 바로 위에 자리 잡고 있는 따뜻한 곳(the hot spot, 아랫목)은 아주 좋은 자리에 해당하지만, 어찌다가 이곳에 앉게 된 선교사들은 불편함에 땀만 흘렸다고 한다.⁴⁶⁾

2006년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에서는 우리 민족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공간적·시간적 동질감을 바탕으로 형성해 온 문화 중 대표성을 지닌 ‘100대 민족문화상징’을 발표하였다. 세부 분야 주생활에는 ‘온돌’이 포함되어 있다.⁴⁷⁾ 오늘날 온돌문화는 찾아볼 수 없으나, ‘온돌침대’가 등장할 정

46)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33-34p

47) 문화관광체육부, <https://www.mcst.go.kr>(검색일 : 2021.05.19)

도로 전통의 지속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5. 전주의 풍습

1) 풍속

(1) 설날

잉골드는 도착한 이듬해에 처음 맞이한 설날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였다.

사람들은 전날부터 큰 소리를 내기 위해 북을 치고 딱총과 폭죽을 쏘아 울리는데, 이게 없으면 무엇이든 두드리며 요란한 소리를 내며 즐겼다. 이 소음 중 일부는 귀신을 쫓는 목적이고, 대부분의 경우는 새해를 맞이하며 서로 축하해주는 것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아주 이상한 옷을 입고, 북을 치며 때로는 머리를 흔들며 대는 괴이한 춤을 추지만 이 모든 게 자신에게 복을 빌어주기 위한 것으로 느낀다.

1899년 2월 1일 일기에서는 전주 여인들은 모두가 새해 준비로 앞으로 약 10일간 바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 기간에 여자들이 하는 일은 빨래, 다림질, 바느질 등의 집안일이다. 설날을 보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모두 이날만큼은 새 옷이나 깨끗한 옷을 입기 때문이다.

1903년 보고서에는 설이 얼마 남지 않은 시기에 전주 여성들은 명절을 준비하느라 너무 열심히 일해서 병이 생길 정도라고 하였다. 심지어 설이 지나면 잉골드를 찾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였다. 명절을 준비하고 지내기 위한 여성들의 노동 강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다.

1901년 5월 잉골드가 기고한 글에 보면 아이들이 새해 아침에 어른들께 세배하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설날에는 아이들이 빨간색, 녹색, 그리고 보라색 옷으로 예쁘게 차려입고 부모와 친척 어른들에게 낮은 자세로 절을 한다. 몸은 곧게 세운 다음 손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서서히 구부린 후 이마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몸을 굽힌다. 우리들이 평상시에 하는 것과는 아주 다르다.

아이들은 절을 한 후에 얼마의 동전을 받는 것에 기대하며 이를

매우 즐겁다. 이 동전은 1센트의 1/10 정도인데, 받으면 먹고 싶은 과자를 살 수 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어른에게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한다.

홍석모의 『동국세시기』에 의하면 설날에 벌어지는 일들에는 세(歲)자가 붙는데, 남녀 어린이들은 모두 새 옷으로 단장하는데 이것을 세장(歲粧)이라 부른다. 우리말로는 설빔이다. 세배(歲拜)는 설날에 자신의 집에서 윗대 어른께 먼저 올리고 아랫대로 내려가며 절을 하는 새해의 첫인사다. 이어서 친척 집을 돌면서 절을 한다. 세배를 마치면 돈을 받고, 과일이나 떡을 먹었다.⁴⁸⁾

(2) 정월대보름

① 석전

잉골드는 새해부터 정월대보름까지 연휴가 계속 이어지며 이 기간에는 거의 일은 하지 않는 ‘15일간의 축제’라고 표현하였다. 1898년에는 이 축제의 마지막 날인 정월대보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두었다.

일은 거의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한다. 그중에 하나는 보름달이 뜬 밤에 하는 돌싸움이다. 개울가 양편에 두 줄로 늘어서서 서로에게 돌을 던진다. 가끔 언덕에 올라가 서로에게 돌을 던지며 즐거워한다. 어떤 경우에는 심하게 다치거나 죽기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한 편이 다른 편에게 항복하거나 양쪽이 멈추기를 동의할 때까지 던지고 피한다. 수많은 관객은 그들과 함께 이 놀이를 즐기는데 간혹 빗나간 돌에 맞기도 한다. 처음에는 기분 좋게 시작한다. 그러나 이내 200~300명이 이 전투에 참여하고, 때로는 대나무 막대기를 치켜들고 서로에게 돌격하기도 한다.

예전부터 내려온 이런 풍습은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사람들에게 싸움을 가르치고 용기를 갖게 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이 날이 지나면 소란을 일으킨 거대한 규모의 돌싸움도 멈추고, 모든 것이 다시 차분한 일상으로 돌아온다.

석전(石戰)은 돌싸움, 돌팔매 싸움, 편싸움[便戰]이라고도 부르며, 정월대보

48)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씀, 2009, 『동국세시기』, 풀빛, 16-18쪽

름이나 단오 등 큰 명절에 행하던 남성들의 놀이로 어느 한 편이 변두리로 도망가면 승부가 난다. 우리 민족은 일찍이 이와 같은 석전을 즐겼다. 『당서(唐書)』 ‘고구려전’에 의하면 국왕이 관전하는 가운데 거행되는 국가적 행사였고, 전투적 연무를 연습하는 유희였다.⁴⁹⁾ 이후에도 많은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으나 모두 전투 연습으로 성행하였다.

조선왕조실록 태조 7년(1398년 5월 5일)에는 임금이 궁성(宮城)의 남문에 거동하여 돌을 던져 싸우는 놀음을 구경하였는데, 좌우편으로 나누어 해가 질 때까지 서로 돌을 던지는데, 죽고 상한 사람이 자못 많았다고 하였다.⁵⁰⁾

잉골드는 이처럼 성행한 돌싸움을 운동 경기로 보았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후 석전은 일제강점기에 부상자가 난다는 것을 빙자해서 민족적 단결과 용감성을 없애기 위해 금지되었다.⁵¹⁾

또 전주에서의 석전 기록은 1989년 전라북도에서 발행한 『전북전통민속-상권』에서 찾아볼 수 있다. 글은 당시 전라일보 편집부 국장이었던 문치상이 썼다. 전주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곤지산과 다가산 부근에서 중학생 또래의 아이들이 매년 정월 보름이면 냇가를 사이에 두고 소규모 동네 싸움을 벌이던 형태가 남아 있었다. 부상자가 생기기도 하였지만, 서로 먼 거리를 두고 팔매질을 하므로 생각처럼 큰 부상은 없었다. 정월대보름날 밤에 기린봉에서 떠오르는 달을 신호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이때가 유시(酉時, 저녁 5~7시) 경이며, 해시(亥時, 저녁 9~11시) 경이 되면 전주천변 일대는 별집을 쭉서 놓은 모양으로 되고 승자의 함성으로 끝이 난다.⁵²⁾

당시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도 석전을 매우 이색적으로 보고 기록으로 많이 남겼다. 특히 길모어는 조선을 방문하고도 이런 싸움을 보지 못한 여행자라면 낯선 조선에서 가장 특징적인 광경 중의 하나를 놓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⁵³⁾

② 허수아비 버리기

잉골드는 정월대보름날 짚으로 만든 인형을 버리는 풍습에 대해 1898년과 1899년까지 두 번 남겼다.

49) 임동권, 1999, 『한국세시풍속』, 서문당, 86-87쪽

50)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검색일 : 2021.05.19.)

51) 임동권, 1999, 앞의 책, 86-87쪽

52) 전라북도, 1989, 『전북전통민속-상권』, 151-152쪽

53) G.W.길모어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서울풍물지』, 집문당, 132-134쪽

정월대보름에는 짚으로 인형을 만들어 자신의 액운을 쫓는 일종의 희생 제물로 길가에 그것을 버린다. 그 안에는 돈이 들어 있어 이미 큰 불행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작은 불행을 또 당하더라도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가난한 거지가 그것을 주워간다. 그 짚 인형과 함께 나쁜 귀신도 함께 가져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짚 인형을 만든 사람에게 많은 불행이 닥친다.

정월대보름 전날에는 허수아비와 같이 사람 형상을 만드는데 크기는 지역과 만드는 사람마다 달라서 30에서 180cm로 다양하다. 그러나 사람의 형상이라는 점은 동일하다. 이를 제웅[處容] 또는 추령[芻靈]이라고 부른다. 14일 밤에는 그해 직성(直星)⁵⁴⁾에 든 사람이 있는 가정에서는 제웅을 만들어 거리나 천에 버린다. 직성에 든 해는 액운이 있어 만사가 여의치 않을 뿐 아니라, 병에 들거나 큰 화를 입게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한 해의 액을 막기 위해서 제웅을 만들고 배나 허리 부분에 돈이나 쌀을 넣어서 동여매고, 이름과 출생년의 간지(干支)를 적어서 버리면 액막이가 된다. 또는 짚 속에 넣어둔 푼돈을 얻으려는 아이들이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제웅 주시오”하고 외치면 주인은 허수아비를 던져 주기도 한다. 이를 제웅[處容] 치기(제웅 버리기)라고 한다.⁵⁵⁾⁵⁶⁾⁵⁷⁾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2003년에 우리 지역의 세시풍속을 조사하여 발간한 『전라북도 세시풍속』에 의하면 전주시의 정월대보름 풍속으로 ‘허세비 버리기’가 있어 유지되어온 풍속임을 알 수 있다.⁵⁸⁾

애너벨도 ‘짚 인형’에 대해 기록하였다. 짚으로 작은 사람 모형을 만들고, 그 안에 돈 몇 푼을 넣어 두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던진다. 누구든지 그것을 줍는 사람은 던진 사람에게 닥칠 만한 일 년 동안의 모든 액운을 가지고 간다. 그래서 거지들이 먼저 그곳에 가서 인형을 줍는다고 하였다.⁵⁹⁾

54) 직성(直星)은 사람의 나이에 따라 운명을 맡아 보는 별을 말하는데, 그 종류는 9개의 별이 있다. 9개의 별에 의하여 나쁜 운[액운]이 걸리게 되고, 그로부터 9년마다 직성의 액이 찾아오게 된다. 남자가 10세를 필두로 각각 19·28·37·46·55·64·73·82세가 되며, 여자는 11세에 시작해 20·29·38·47·56·65·74·83세에 해당한다. 이 나이가 되면 ‘직성 풀이’와 같은 일정한 의식을 통해 그 해의 사나운 운수를 풀어냄으로써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믿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직성이 풀려야 된다’는 말을 할 때가 있다. 이는 소원, 욕망 등이 이루어져 마음이 흡족하게 된다는 뜻이다.

55)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씀, 2009, 앞의 책, 55-56쪽

56) 임동권, 1999, 앞의 책, 62-63쪽

57) 최상수, 1988, 『세시풍속』, 서문당, 47쪽

58)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 182-227쪽

59)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104-105p

선교사 게일도 제웅에 대한 기록을 남겼으며, 알렌은 제웅을 두고, ‘액땀해 주는 허수아비’라고 하였다. 조선인들은 사람 모양의 짚에 돈을 약간 넣어 버리면 그해의 액운까지 모두 없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는 행사라고 하였다.⁶⁰⁾⁶¹⁾

③ 어부슴

잉골드는 1898년 전주에서 지낸 정월대보름 행사를 “도시를 가로지르는 냇물에 밥을 뿌려 시냇물 귀신을 달래기도 한다”고 기록하였다. 이것은 정월대보름 전날 저녁이나 대보름 새벽에 그해의 액막이를 위해 깨끗한 종이에 밥을 싸서 물에 던지는 풍속이다. 물고기나 오리에게 밥을 베풀어 먹이는 ‘어부슴 [魚鳧施, 어부시] 또는 어부식(魚鳧食)이라고 부른다. 다른 이름으로 용궁맞이, 용왕제, 용왕먹이기, 용왕산제, 물산제 등이 있다. 어부슴은 물고기와 관련되어 물고기에게 베풀어 먹인다는 뜻이고, 나머지는 용궁이나 용왕과 관련되어 있다. 모두 강이나 바다에서 집안의 할머니나 어머니인 여성이 새해의 운수 대통과 가정의 안녕을 비는 의례다. 어부슴은 강이나 바다를 끼고 있는 마을에는 꼭 존재하였고, 강이나 바다가 없는 지역에서는 냇물이나 집안의 우물에서도 행해진 용왕 신앙이다.⁶²⁾ 이와 같은 풍습은 『열양세시기』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동국세시기』에는 정월대보름에 직성(直星)을 만난 사람은 종이에 밥을 싸서 밤중에 우물 속에 던져 액막이한다고 하였다.⁶³⁾

(3) 백중날

잉골드는 한국에서 처음 맞이하는 여름 날씨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한다. 더위는 자신에게서 식욕, 힘, 의지를 모두 빼앗아가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었다고 하였다. 1898년 여름, 일기에서는 우기가 계속된 후 2주 동안 격렬한 햇볕이 모든 것을 말리고, 다시 쏟아지듯 비가 내리는 날 매우 흥미로운 광경을 보고 기록으로 남겼다.

농부들이 논에서 잡초를 뽑는 광경은 매우 흥미롭다. 아랫마을에 있는 논에서는 20여 명의 농부가 부지런히 일했다. 처음에 그들은

60) 제임스 게일 저, 장문평 역, 1971, 『코리언 스케치』, 현암사, 205-207쪽

61) H.N.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앞의 책, 135쪽

62)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460-462쪽

63)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씀, 2009, 앞의 책, 56쪽

는 가장자리에서 용이 그려진 큰 깃발을 들었다. 용은 한국 문화에서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상상의 동물이다. 큰 깃발 옆에는 두 개의 작은 깃발이 있다. 그들은 비의 신에게 충분한 양의 비를 내려 풍년이 들게 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

농부 네댓 명으로 구성된 악단들은 서로 다른 악기를 열심히 연주하였다. 웃으면서 기괴한 춤을 추었는데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음악 소리에 맞춰서 논으로 행진하며 춤추고, 잡초를 뽑았다. 쌀은 매우 귀하고 소중한 식량이기 때문에 벼가 잘 자라서 풍년이 들기를 바란다.

잉골드가 기록한 내용을 살펴보면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 논에서 잡초를 뽑고, 농악으로 흥을 돋우는 농민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7월의 세시풍속 백중(伯仲)은 『열양세시기』, 『동국세시기』, 『경도잡지』 모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래 ‘백중놀이(伯仲)’라는 말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지명과 함께 묶어서 쓰이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는 경남의 밀양 백중놀이, 충남의 연산 백중놀이, 충북의 괴산 백중놀이, 서울의 송파 백중놀이 그리고 전주의 칠월 백중놀이이다. 전주에서는 주로 ‘술매이(술매이)’라고 불렀다. 모두 공동체적 두레놀이이며, 구체적인 놀이로는 농기싸움, 들돌 들기, 모래찜질, 물맞이 등으로 다양하지만, 이날 마을 단위로 모여서 논매고 먹고 마시며 놀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모습이다.⁶⁴⁾⁶⁵⁾⁶⁶⁾

특히 전주에서는 마을마다 기를 제작하여 용기놀이 문화를 누려왔다.⁶⁷⁾ 여름철 농번기에는 마을 남자들이 동원되어 공동으로 모내기를 하거나 김을 맨다. 이 작업을 ‘두레 난다’고 말한다. 이때 농기를 마을 앞에 세우면 일꾼들이 모여든다. 논으로 나아갈 때는 농기를 앞세우고 농부들이 뒤따른다. 기폭에는 ‘農者天下之大本(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크게 쓰는 예가 많으나, 이렇게 쓰는 것은 최근의 일이고,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글은 쓰지 않고 용을 그렸다. 그래서 ‘용기(龍旗)’라고 불렀다. 신성한 용은 농신(農神)의 사자(使者)로서 풍운 조화를 부려 비를 내려주므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⁶⁸⁾

64) 국립민속박물관, 2015,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놀이』, 국립민속박물관, 286-288쪽
 65)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 국립민속박물관, 68-70, 115-119쪽
 66)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 182-227쪽
 67) 전주문화원, 2015, 『전주기접놀이』, 전주문화원, 13-48쪽

특히 전주 평화동과 효자동의 여러 마을에서 성한 기잡놀이는 전북지방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였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인 1940년 무렵까지 성행하다가 서서히 중단되었다. 계승을 위해 1974년 6월 4일 풍납제 행사에서 전주농고 농악대 50명과 현지 주민 50여 명이 함께 재현한 바 있다.⁶⁹⁾ 예전에는 기잡놀이 라는 명칭은 없었으며, 1974년 풍납제 행사부터 불렀다. 전주기잡놀이는 백중날 술맥이에 이어지는 놀이 중에 하나지만 현재는 기잡놀이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행사로 열리고 있다. 故 심동섭(1921년생)의 구술내용에 따르면 가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물이 필요하므로 기에 용을 그려서 비를 기다린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를 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제를 지내고, 풍물굿(풍장굿)을 치며, 기를 세워두면 사흘 만에 비가 내린다고 하였다. 용이 올라가야 비가 내린다고 믿었기 때문이다.⁷⁰⁾⁷¹⁾ 모두 잉골드의 일기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나아가 전주기잡놀이는 2018년에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63호로 지정되었으며, 2021년에는 전주기잡놀이 전수관도 개관하였다.

2) 생활 문화

(1) 장례 문화

잉골드는 1898년 4월 1일, 전주에서 익산으로 전도 여행을 가면서 처음으로 장례식을 보게 된다. 사람들이 여러 개의 깃발을 들고 뒤따르며 모두 큰소리로 통곡을 한다. 시신을 묻고 돌아온 후 죽은 사람이 입었던 옷을 불태우는데 망자의 옷을 입으면 그 혼이 그들의 몸으로 들어와 죽는다는 두려움으로 아무도 그 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옷을 영혼에 돌려준다는 의미로 태우거나 무당이나 거지에게 준다.

잉골드가 표현한 깃발은 만장(挽章)이다. 만장은 종이나 비단에 고인을 애도하는 글이나 공덕을 써서 고인에 대한 염원과 아픔을 극진하게 나타내며 극락왕생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 일정한 형식이나 수의 제한은 없으며, 친구나 친척 등 지인들이 글을 적고 기를 만들어 장례 행렬에 따르는 것이다.⁷²⁾

1899년 3월 1일 일기에서도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 관해 썼다.

68) 전라북도, 1989, 『전북전통민속-상권』, 133-134쪽

69) 전라북도, 1984, 『내 고장 전북의 뿌리』, 147-149쪽

70) 임은영, 2009, 『전주기잡놀이의 민족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45-46, 84-85쪽

71)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검색일 : 2021.05.19.)

72) 남민이, 2002, 『상장례 민속학』, 시그마프레스, 142쪽

가족 모두가 ‘아이고, 아이고(I-go, I-go)’라고 소리를 내며 통곡하는데, 이 소리로 그 집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여는 매우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 상여꾼들이 무덤까지 메고 간다. 시신은 널빤지로 만든 길고 관만한 관에 안치하고 그 위에 빨간색, 노란색, 녹색, 보라색, 파란색을 칠하고 같은 색의 천으로 묶는다. 무덤은 크고 둥근 산 모양으로 만들고 잔디를 보기 좋게 입힌다. 어떤 것은 지름이 10피트(약 305cm)까지 되기도 한다. 시신을 땅에 매장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땅에 말뚝을 박고, 관을 올리고, 짚으로 덮어 땅에 닿게 늘어뜨린다. 이 짚으로 만든 무덤의 높이는 약 3~4피트(약 91~122cm) 정도다. 이 무덤은 돈을 들여 지관을 고용해 땅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땅 위든 상관없다. 후에 그들에게 돈이 모인다면 시신을 옮겨 매장한다. 그러나 많은 시신은 결코 땅에 묻히지 못해 썩을 때까지 땅 위에 그대로 있다. 그 부근에는 많은 뼈가 굴러다닌다.

덧붙여서 전주에는 묘지를 쓰지 못하게 되어 있는 도시 쪽의 산기슭을 제외하고, 어느 산비탈이든 무덤이 뽀뽀하고, 시신을 명당에 묻지 않으면 남은 가족에게 불행과 나병과 같은 병이 찾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적당한 땅을 구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따라서 지관(地官)을 불러 자리를 잡는다고 하였다. 지관은 전통적으로 중국과 한국에 풍수 문화가 성행하면서 생긴 길흉을 고려하여 장지나 택지를 정하는 전문적인 사람 또는 직업이다. 지관을 통해서 장지를 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 것을 알 수 있다.

상여(喪輿)는 관을 장지로 운구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규모가 큰 상여는 대여(大輿), 작은 상여는 소여(小輿)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는 상여는 두 종류인데 하나는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반영구적인 상여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한 번만 쓰고 태우는 보통 일컫는 ‘꽃상여’다. 지금은 운구차로 대신하여 사라진 문화다.⁷³⁾

곡(哭)은 초상을 당했을 때 슬픈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 일정한 격식과 절차에 따라 소리 내어 우는 의례 행위다. 소리로는 ‘아이고’, ‘애고’, ‘어어어어’ 등이 있다.⁷⁴⁾

마지막으로 잉골드는 무덤 앞에 있는 석판 위에 고인을 위한 음식이 차려지

73) 남민이, 2002, 앞의책, 142~144쪽

74)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검색일 : 2021.05.19.)

는 것을 보고 매우 의아해한다. 음식이 차려지면 큰아들이 종이에 적힌 글을 읽는데, 이것은 혼령을 불러 음식을 먹으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혼령은 냄새만 맡게 되며 제단 위의 음식을 맛볼 수 없다는 점이다. 심지어 무덤 앞에서 통곡하며 애도하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 음식으로 잔치를 벌이거나 다시 집으로 가져와서 먹는 모습을 보고, 정작 음식을 먹는 사람은 산 사람인데, 이것에 대해 혼령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의문이라고 하였다.

애너벨도 한국의 장례 문화에 관해 기술하였다.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관을 선물하는 것은 존경의 표시라고 하였다. 고인이 되어 시신을 매장한 후에는 무덤 앞에 제상을 차리고 가족들은 절을 한다. 이 모든 것이 끝나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음식과 술을 들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 이를 두고 이해할 순 없지만, 일상생활에 깊숙이 관련되어 있어서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문화라고 하였다. 모든 제사는 장남이 지내는데, 비용은 상속으로 받게 된다. 한국에서는 가문 관념이 매우 강해서 장남이나 며느리가 기독교인이 되면, 그 집안은 대혼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장남은 그 집안의 명예, 권위와 특권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이러한 일이 한국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 하였다.⁷⁵⁾

(2) 민간요법

잉골드의 진료기록을 보면 1898년 5월 31일에 전주에서 처음 마취제를 사용하여 턱 탈구 환자를 치료한 기록이 있다. 하지만 잉골드가 기록한 진료기록에는 전주 민가에서 성행된 민간요법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또 민간요법은 아주 다양하다.

산모가 출산 후에도 자궁에 태반이 남아 있으면 산모의 발을 소금으로 덮어 두는데 이렇게 하면 태반이 잘 빠져나온다고 믿었다. 사람들은 땃줄을 아주 귀하여 여겼고, 말린 다음 가루로 만들어 두었다가 상처나 종기에 뿌렸다.

아내는 콜레라에 걸린 남편에게 피를 주기 위해 손가락을 자르기도 한다. 손가락이 기형으로 될지라도 매우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순종적인 아내와 효를 아는 자식은 남편이나 부모에게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나눠주는데, 이런 문화는 허용을 넘어 권장하는 문화로 되어 있다.

급성 신장염에 걸린 아이에게는 닭의 똥을 말린 후에 볶아서 차로 주었다. 잉골드는 관찰과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사로서, 어느 나라의 부모가 아

75)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103-104p

이에게 똥을 줄 수 있는지 의아해했다.

전주 사람들은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에 대해 하나같이 단번에 그리고 즉시 나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당장 병이 낫지 않을지라도 너무도 다양한 민간요법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선교사 와그너(E.C. Wagner, 1881~1957)는 한국인들이 병의 고통을 이기기 위해 하는 일들은 매우 끔찍하다고 하였다. 과학적인 치료법이 없는 한국에는 호랑이 뼈로 만든 만병통치약, 까마귀 발이나 곰쓸개로 만든 약이 있다고 하였다. 또 뱀탕, 지네 분말 같은 매우 극단적인 치료제는 이것으로 인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였다. 병을 치료하는 의원들이 선호하는 치료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불침을 놓는 것인데 이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국인들이 믿는 미신과 무지의 치료법으로 인해 아이들은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며, 어린아이가 성인으로 성장한다는 사실이 놀라울 뿐이라고 하였다.⁷⁶⁾

역시 전주 사람들도 병에 걸리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민간요법으로 치료를 해보고,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최후의 수단으로 잉골드를 찾았다.

의사인 잉골드는 우리 지역의 민간요법을 기록하면서 효과가 없거나, 미개한 일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는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술하였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반면, 구한말에 들어온 다른 외국인의 기록에 의하면 조선을 합리성과 과학에서 동떨어진 미개한 나라 취급을 하였으며, 근거 없는 치료법과 무당의 푸닥거리로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야만적이며 저질적인 미신에 속박된 나라로 평가하였다.⁷⁷⁾

(3) 민간신앙

잉골드는 1898년 5월 2일 전주를 둘러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느 집 앞에 형형색색의 술이 달린 두 개의 하얀 천을 보았다. 이것은 천연두라는 고귀한 손님 귀신이 왔다는 표시로 문상객이나 병이 있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라고 했다.

조선인들은 천연두를 병이 아닌, ‘손님’, ‘마마님’이라고 부르며 아이의 몸에

76) E.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한국의 아동생활』, 집문당, 45-46쪽

77) 서영수·장두식, 2013, 『서양인이 본 한국의 세시풍속』, 『사학지』, 제46집, 269-290쪽

들어간 손님 귀신을 매우 정중하게 대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귀신 앞에 절을 하면서 ‘참 굽다’라고 말을 하면 귀신이 아이에게 심한 흉터를 남기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다.

천연두를 앓는 집에서는 종이로 깃대를 만들고 江南戶口別星司命旗(강남호 구별성사명기)라는 글을 써서 대문 앞에 둔다. 또 마마님을 보내는 곳을 했는데 바람몰이, 마마배송굿, 손님굿이다. 명칭과 형식은 달리하더라도 굿은 전국적인 분포였다. 아직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아이에게는 12월 납평일(臘平日)⁷⁸⁾에 참새를 구워 먹이면 병을 피할 수 있다고 믿었다. 천연두를 손님 신으로 격상 시켜 그 신을 잘 모시고 보내드리는 선행 모방 의례를 행함으로써 천연두의 감염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내재해 있었기 때문이다.⁷⁹⁾

잉골드는 1899년에 전주 사람들에게 천연두 예방 접종에 대해 알려주려고 하자, 익히 알고 있었다고 한다. 또 어느 정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지만, 접종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고, 잉골드는 단 한 명의 아이에게도 예방 접종을 하지 못했다. 이 밖에도 잉골드가 보고 기록한 전주 지역의 민간신앙이나 무속적 관습에 이끌려 믿는 미신은 표 1과 같다. 질병과 건강을 위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표 1. 잉골드가 기록한 전주 지역의 미신

미신	구분
재채기를 하고 손짓과 함께 “저리 가, 저리 가”라고 하면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감기 귀신에게 하는 말이다.	질병
병에 관해 이야기하면 더 심해진다. 따라서 작은 목소리로 또는 아예 말을 하지 않는다.	질병
여인이 아픈 것은 집 나간 남편 때문에 귀신이 노했기 때문이다.	질병
아버지가 아들 병의 원인인 귀신을 쫓기 위해 아들의 엄지손가락을 숯불로 지졌다.	질병
단독 ⁸⁰⁾ 을 낮게 하는 제일 좋은 치료법은 머리와 다리를 잘라낸 돼지의 배를 갈라 그 속에 집어넣고 꿰뚫어 묶는 것이다.	질병
천연두에 걸렸을 때, 물고기와 버드나무를 같이 끓인 물을 마시면 눈이 먼다.	질병
습진은 오줌으로 씻으면 낫는다.	질병
아기에게 ‘통통하다, 무겁다’라고 말을 하면 실제로 아기는 튼튼하게 자라지 못한다.	건강
아기가 태어나 삼칠이 되기 전에 이웃 사람들이 닭이나 개를 잡아먹으면 아이가 해를 입는다.	건강
아기가 태어나면 미라처럼 양팔을 옆구리에 붙여 싸둔다. 그렇지 않으면 놀라서 떨	건강

78) 납일(臘日)을 말한다. 납향(臘享)하는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동지 후 셋째 미일(未日)을 납일로 정하였다.

79)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검색일 : 2021.05.19.)

미신	구분
정도로 경기를 한다.	
발에 쥐가 나면 손가락으로 입을 만지고 코와 턱에 대면 나아진다.	건강
이웃집에서 장례를 치르면 3일 동안 일을 하지 않는다. 죽은 사람이 “빨리 일을 마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기 때문이다.	건강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두통과 여드름이 생긴다.	건강
앞니가 비뚤어지게 나면 살면서 엄청난 곤경에 처하게 된다.	안녕
어부들은 고기잡이를 나가기 전에 양철 그릇을 두드려 요란한 소리로 귀신을 쫓는다.	안녕
행인들은 길의 수호자인 장승 앞에서 악한 귀신을 쫓아 안전한 여행을 하게 해달라고 절을 한다.	안녕
울타리 주위에 나뭇가지를 매달아 놓는다. 이렇게 하면 도둑의 눈이 빠진다.	
뺨 이는 모아두었다가 죽을 때 함께 묻는다.	
아이의 머리카락을 버리면 죽은 후에 뱀이 된다.	
지진은 임박한 재앙의 징조다.	

1899년 11월 14일 일기를 보면, 치료를 위해 문진을 하면 사람들은 병에 대해 쉽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말을 하면 귀신이 듣고 크게 노하여 병을 더 악화시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환자들은 잉골드에게 바라보고 바로 약만 주기를 원했다. 이듬해에는 한 여인이 잉골드를 찾아와 자신의 병에 대해 아주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잉골드가 “말을 크게 하세요”라고 큰 소리를 내자 역시나 귀신이 자신의 말을 들으면 병이 더 심해질 것이라며 무서워했다. 잉골드는 서서히 이게 이곳의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1911년 진료 기록에는 턱뼈가 빠진 여성이 왔는데, 그동안 무당을 불러 나막신으로 뼈를 맞추면서 모든 것을 다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사람들은 병에 걸린다는 것은 나쁜 귀신이 몸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믿고, 쫓기 위해서 먼저 무당을 찾아가고, 많은 돈을 쓰고서야 낫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마지막에 잉골드를 찾아왔다.

애너벨은 보고서에서 무당(Moo-tang)은 여자이고, ‘군중을 속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사람들은 천연두 귀신을 쫓기 위해서나 폭풍에 바다의 신을 잠재우기 위해 무당을 찾아가 빈다. 무당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⁸¹⁾

잉골드는 1899년 2월 1일, 친구들에게 전주에서 생활한 지 1년이 넘어서자

80) 단독(丹毒)은 피부의 현대나 다친 곳으로 세균이 들어가서 감염되어 열이 오르고 얼굴이 붉어지며 붓게 되어 부기(浮氣), 동통(疼痛)을 일으키는 병이다.

81) Anabel Major Nisbet, 1920, 앞의 책, 106p

이곳의 문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편지를 쓸 만큼 특이하거나 재미있는 것은 없다고 하였다. 1년 전에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은 꽤 자연스러울 뿐 아니라 적절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하였다. 이런 모습에 자신이 서서히 한국인이 다 되어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 사람들을 마음으로 이해하려면 평생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는 어느 집, 누구를 막론하고 귀신이 무서워 쫓기에 바빴고,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하였다. 모든 병과 나쁜 일은 귀신으로 비롯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만이 아는 귀신을 달래고, 쫓는 확고한 신앙이 있다고 하였다.

잉골드는 1899년 11월 1일 일기에서 우리나라 풍속(Pounsok)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관습과 풍속은 삶 가운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하였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이 정말 많은 부분에서 풍속을 무시하면 반드시 이웃들로부터 조롱과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교사 게일도 조선에서는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갓을 쓰고, 자신의 나라에서는 모자를 벗어야 한다는 점에서 조선의 예절과 풍습은 정반대인 것이 많다고 설명했다. 게일은 이름 없는 여성에게 왜 조선에서는 여자들이 집에만 머물러 감옥살이를 해야 하냐고 묻자 여성은 “이건 풍속(p'ung-sok)이에요. 풍속. 풍속은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지요”라는 답을 들었다. 조선에서 풍습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고, 풍습에 따라 취해진 억압 속에서 사는 게 바로 조선인이다.⁸²⁾

6. 맺음말

잉골드가 1897년부터 1925년까지 기록한 일기, 보고서 등을 통해 당시 전주 사람들의 의식주, 세시풍속과 생활문화에 대해 알 수 있었다.

먼저 잉골드가 처음 본 전주는 성을 가운데 두고 안과 밖으로 나뉘는데 성 안에는 관찰사가 거주하고 있다. 도시를 가로질러 천이 흐르고 이곳에서 아이들은 놀고, 아낙네들은 빨래하고, 채소를 씻는다. 미적인 건축물은 없고, 모든 산의 나무는 빨갭으로 베어져 벌거숭이다. 좁은 거리마다 악취가 진동하고, 밤에는 방을 데우기 위해 태운 잡목의 연기가 자욱했다. 이런 상황일지라고 잉골드가 느낀 전주는 ‘아름다운 곳’이었다.

사람들의 의복에서 신분 계급을 알 수 있었으며, 서민의 옷, 기생의 옷 그리

82) 제임스 게일 저, 장문평 역, 1971, 앞의 책, 276쪽

고 상류층 여인의 한복을 비교하여 설명하였다. 또 신랑과 신부의 혼례복을 자세히 기술하여 당시 전주의 혼례문화를 알 수 있었다.

식생활에서는 노인의 생일잔치에 초대되어 전주의 음식문화를 경험하게 된다. 무엇보다 음식에 넉넉하게 들어간 고춧가루로 인해 고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는 한국음식에서는 빠질 수 없는 반찬이며 모두가 겨울을 위해 많은 양의 김치를 담가 저장해 두고 먹는다.

나아가 다른 선교사의 기록을 통해 잉골드는 딸기를 조선 땅에 가지고 온 최초의 인물로 화산동을 딸기의 본고장으로 정착 시켜 전국에 보급한 인물임을 알 수 있었다.

주생활 면에서는 비위생적인 집과 온돌에 대해 기록하였다. 한국 집은 깊으로 엮어 만드는데, 내부는 거의 장식 없이, 냄새가 나며 벌레로 지저분하다. 시골로 며칠씩 전도 여행을 가면 초가집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이때마다 뜨거운 온돌로 인해 고생하게 된다. 밀폐된 방에서 땀처럼 구워져야 하는 괴로움을 느껴야 했으며, 그 열기에 몸이 타지 않으려면 계속 뒤척여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그 시대 사람들의 삶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세시풍속으로는 설날, 정월대보름, 백중날 놀이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설날을 맞이하기 위해 여인들이 해야 할 일과 설빔을 입고, 세배하며, 세뱃돈 받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정월대보름에는 석전, 허수아비 버리기, 어부숨에 대해 살펴보았고, 백중날에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점놀이를 하는 목적, 방법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잉골드가 진료기록에 기록한 우리 지역의 다양한 민간요법과 한의원에서는 한의학의 전문적인 지식을 학교가 아닌 책 한 권으로 배워 침과 다양한 약재로 치료를 한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풍속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기독교인일지라도 풍속을 무시한다면 반드시 이웃들로부터 조롱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잉골드의 기록을 통해 본 전주의 풍습과 문화는 지금까지 내려오는 문화도 있고, 완전히 사라져 문헌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풍습도 있다. 다만 전주만의 특수성을 가진 문화는 거의 살펴볼 수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주라는 지역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았으며, 전주에서 28년간 지낸 미국인 의료선교사 마티잉골드가 기록한 우리가 되새겨야 할 전주의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다. 나아가 잉골드의 기록은 전주의 전통문화를 복원하는데 중요한 사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논문접수일: 2021. 10. 26. / 심사개시일: 2021. 11. 12. / 게재확정일: 2021. 12. 01.

참고문헌

단행본

- Anabel, M. N., 1920, *Day in and day out in Korea*, Presbyterian Committee of Publication, pp. 1-199.
- Seel, D. J., 1999, *For whom no labor of love is ever lost: The history of Presbyterian Medical Center, Chonju, Korea, 1898~1998*, Providence House Publishers, p. 32.
- ゲ.デ.チャガイ 編, 井上絃一 訳者, 1992, 『朝鮮旅行記』, 104-117쪽.
- E.와그너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한국의 아동생활』, 집문당, 45-46쪽.
- G.W.길모어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서울풍물지』, 집문당, 132-134쪽.
- H.N.알렌 지음, 신복룡 역주, 1999, 『조선 건문기』, 집문당, 56, 135쪽.
- 강덕영, 2020, 『여명의 빛, 조선을 깨우다』, 상상나무, 105-109쪽.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3, 『전라북도 세시풍속』, 182-227쪽.
- 국립민속박물관, 2005, 『한국세시풍속사전-가을편』, 국립민속박물관, 68-70, 115-119쪽.
- 국립민속박물관, 2011, 『한국민속신앙사전-가정신앙』, 국립민속박물관, 460-462쪽.
- 국립민속박물관, 2015, 『한국민속예술사전-민속놀이』, 국립민속박물관, 286-288쪽.
- 국립제주박물관, 2003, 『항해와 표류의 역사』, 206-219쪽.
- 김수진, 1998, 『호남기독교 100년사』, 쿨란출판사, 22-24, 154-161쪽.
- 남민이, 2002, 『상장례 민속학』, 시그마프레스, 142-144쪽.
- 농촌진흥청, 2019, 『농업기술기잡이-딸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14-16쪽.
-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편, 2014, 『세시풍속의 지속과 변용』, 채륜, 72쪽.
- 마티 잉골드 지음, 고근 옮김, 2018, 『마티 잉골드 일기』, 한솔디자인, 1-400쪽.
- 임동권, 1999, 『한국세시풍속』, 서문당, 62-63, 86-87쪽.
- 장명수, 송영애, 2021, 『100년 전, 전주음식』, 공감, 125쪽. (출판 예정)
- 전라북도, 1984, 『내 고장 전북의 뿌리』, 147-149쪽.
- 전라북도, 1989, 『전북전통민속-상권』, 133-134, 151-152쪽.
- 전주문화원, 2015, 『전주기잡놀이』, 전주문화원, 13-48쪽.
- 제임스 게일 저, 장문평 역, 1971, 『코리아인 스케치』, 현암사, 205-207, 276쪽.

- 조자호 지음, 정양완 풀어쓰, 2014, 『조선요리법』, 책미래, 13쪽.
최공호 외 지음, 2015, 『한국인의 신발, 화해』, 미진사, 100-103쪽.
최상수, 1988, 『세시풍속』, 서문당, 47쪽.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6a, 『Personal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Korea(1892~1986)-16』, 13쪽.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1996b, 『Personal Reports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aries Korea(1892~1986)-19』, 35쪽.
한복진흥센터, 2015, 『한복이야기』, 비도트퍼블리싱, 24쪽.
한식재단, 2009, 『근대 한식의 풍경』, 한림출판사, 145-169쪽.
홍석모 지음, 정승모 풀어쓰, 2009, 『동국세시기』, 풀빛, 16-18, 55-56쪽.

논문

- 김천식, 2011, 「마티 잉골드의 선교 활동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1-46쪽.
류대영, 2012,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테이트(Lewis Boyd Tate) 가족의 한국 선교」, 『한국기독교와 역사』 27호, 5-35쪽.
서영수, 장두식, 2013, 「서양인이 본 한국의 세시풍속」, 『사학지』, 46집, 269-290쪽.
이남식, 2003, 「전진의 전북지방 선교」, 석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1-8, 29-46쪽.
임은영, 2009, 「전주기점놀이의 민족지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45-46, 84-85쪽.
임현주, 2012, 「조선 시대 원삼의 유래와 변천과정 연구」, 박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30쪽.
장윤금, 2012, 「우리나라 초기 외국인 선교사 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필요성 연구(1800~1910)」, 『정보관리학회지』 30권 4호, 266-281쪽.

인터넷 사이트

- HathiTrust Digital Library, <https://www.hathitrust.org>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Library, <https://library.ptsem.edu>
The New York Public Library, <https://www.nypl.org>
The Presbyterian Historical Society's Digital Collections, <https://www.history>

pcusa.org

University of Arkansas Library, <https://libraries.uark.edu>

Yale University, Beinecke Library, <https://beinecke.library.yale.edu>

Yale University, Divinity school Library, <https://divinity.yale.edu>

문화관광체육부, <https://www.mcst.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한국민속대백과사전, <https://folkency.nfm.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s://www.culturecontent.com>

<Abstract>

The Customs of Jeonju in the Records of a Missionary

- A Focus on the Record of M.B. Ingold -

Song, Young-Ai*

This study is based on the record of a medical missionary M.B. Ingold, who dwelled for 28 years in Jeonju from 1897 to 1925. The record left by Ingold varies, including diaries, reports, letters, and medical records. In this document, the study examined the lifestyle of Jeonju of those days, such as seasonal customs, folk beliefs, folk remedies, and the necessities of life.

As a result, we found out customs such as ‘Seolbim(New year’s dress)’ for ‘Seollal’ and ‘Sebae(New year’s bow)’ that have continued so far. Whereas, customs like ‘Seokjeon(mock fight with stones)’, ‘Dumping scarecrow’ and ‘Eobuseum(fish-feeding event)’ for the day of the first full moon of the lunar year have wholly disappeared so that they remain only in the literature. Furthermore, we looked at food, clothing, and shelter of Jeonju. They lived in a thatched-roof house called ‘Chogajip’ and it has ‘Ondol’,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floor heating system. They lived on rice and ‘Kimchi’. People dress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ir caste and the situation, and Ingold wrote about their splendid wedding clothes. They believed all disease are caused by ghosts coming in, so when someone got sick, they treated with folk remedies at home, and then visited a shaman. This was the people’s life in Jeonju at that time. Ingold’s record is weighed against the data left by foreigners who visited Jeonju, the documents left by missionaries who worked in other regions, and Anabel Major Nisbet’s data compiling activity report of mission work in Honam region from 1892 to 1919, which was published in 1920. By this comparison, this study attempted to objectify the subjective records of Ingold as much as possible.

Key Words : M.B. Ingold, Missionary, Jeonju, Seasonal custom, The necessities of life

* Research professor, K-food Industrial Research Institute, Jeonju University